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8호 [무게 제24531호] 주제103(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5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에서는 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준공을 앞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국제친선소년회관의 극장, 등산지식보급실, 전자오락실, 도서실, 국제친선실, 소년단실, 미술실, 송세전람실, 립체물동영화관 등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고, 조선의 건축술이 세계적수준에 당당히 올라섰다고 궁극에 넘쳐 말하셨다.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 야외물놀이장, 야외활쏘기장을 정말 잘 건설했다고, 운동장의 인공잔디, 관람석의 자, 물걸레모양, 푸른색이 조화를 잘 이룬다고, 모든 건축물들이 말 그대로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 예술작품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야영소의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들이 규모에 있어서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조선의 체모에 맞을뿐 아니라 요소요소가 조선의 얼굴이 살아나고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이 보장되었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야영소가 훌륭히 개건될 수 있는 것은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충정의 땀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군인건설자들과 해당 부문 일관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방송 위성TV방송, 국제방송, 인터넷홈페이지인 인민망, 광명망, 참고소식망, 중국망, 동북보도망, 동북망, 길림망,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 영국신문 《인디펜던트》, 캐나다신문 《캐나디안 포스트》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길림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이란신문 《이란뉴스》는 이 소식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었다는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의 《길림신문》,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지 뉴스TV방송, 웹망의 인터넷통신들이 브이엔엑스프레스, 전 쟈, 벨가리아신문 《드네브니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태양건설에 즈음하여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데 대하여, 네발신문 《아르판은》은 김대령과 제비비사이의 남지축구경기를 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 웹망, 네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전원들을 보도하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기》를 대양에 즈음하여 풍고 브라질 아르

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를 로씨야 하바스크르변간출판사에서 15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수여할에 대한 결정

조선인민군 차수칭호를 다음과 같이 수여할것을 결정한다.

활 병 서 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주제 103(2014)년 4월 26일

##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자

**세 폭의 붉은기 날리며 계속 전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인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조직들은 대고조의 불길을 세게 지펴나가는 데 모를 빠르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 같은 꼴 사상을,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기가 총진군대오에 더욱 힘차게 나뭇기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자기 단위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계속적인, 계속적인 전진하며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보람찬 전진길을 다그쳐나간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게 지펴올리고있다.

창성식료공장 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6월 몸소 공장을 찾으신 다음에 대양까지 3중3대혁명붉은기기를 꼭 쟁취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대중을 힘있게

**살림집들의 골조가 기세좋게 솟구친다**

위성과 학자거리 건설장에서

들과 군인들이 놀라운 골조공사 속도를 기록하고있다.

호동봉, 부대별, 구분별사회의장이 힘있게 벌어지고 경제선동의 불씨가 높이 울리는 속에 전반적인 살림집골조공사율은 25일현재 85%에 이를 것을 돌파하였다.

김경남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10호동 살림집 3현관 골조공사를 지난 14일 오후에 끝내 결속함으로써 골조공사율은 10호동 살림집 2현관 골조공사를 끝내었으며 조정남소속부대, 차광호소속부대, 김창중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지방간변 및 장식보공사에 마지막박차를 가하였다.

조선인민내무군 진평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도 17호동, 18호동 살림집건설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여러

고 대형정밀회틀시공방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지체와 기공구들을 마련하였다. 그 성과에 토대하여 골조공사에 진입한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벽체회틀조립과 혼합물 다짐 등을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공사장적으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담보해나가는 데 앞선 단위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 임종춘소속부대, 김용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벽체회틀조립과 혼합물 다짐 등을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공사장적으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담보해나가는 데 앞선 단위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 임종춘소속부대, 김용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벽체회틀조립과 혼합물 다짐 등을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공사장적으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담보해나가는 데 앞선 단위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조선인민군 임종춘소속부대, 김용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벽체회틀조립과 혼합물 다짐 등을 철저히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해나감으로써 공사장적으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담보해나가는 데 앞선 단위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본사기자 리병준

# 정론 혁명의 교과서를 심장에 안고 살라

우리 조국의 역설 기상이 하늘에 닿고있다. 백두산의 신선한 혁명바람, 투쟁바람이 초소마다, 일터마다 흘러들어 기세도 열정도 기풍도 날이 갈수록 새롭다. 시련이 겹쌓여도 용기백배하여 나아가는 시대의 기상에 가슴벅차오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뜨겁고 역세게 자리잡는 것이 있다.

삶의 표부를 주고 인생의 철리를 주며 광풍속에서도 오직 앞으로만 내달리게 하고 맨투머리로 위훈의 탐을 쌓을수 있게 하는 승리의 기치가 언제나 있다는것을 생각할 때 마음은 얼마나 든든해지고 신념의 눈으로 바라보는 희망의 언덕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조선로동당 제 8차 상임집단대회장을 짜르짜르 울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정에 넘친 말씀이 가슴을 쿵쿵 울려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명도사를 교과서로 삼고 일해야간단하다 말했지만 모를것도 없다고 하시던 그 력사적인 선언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념의 기둥으로, 역사의 지주들로 자리잡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동무들이 지켜선 조국보위조소들과 공작과 농촌 그 어디에나 병사들과 인민들이 수박한 목소리에서 화를 불키고,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묘술을 찾아내신 절세의 위인들의 탁월한 령도예술의 귀감이 새겨져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그렇듯 고귀한 실천의 지침, 사업과 생활의 영원한 좌우명을 받아안은 일꾼들의 가슴속에는 얼마나 세차게 울렁이었던가.

한없이 심오한 그 뜻은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잡고있다.

혁명의 교과서!

우리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그 숭엄한 세계를 깊이 새겨본다.

우리의 모든 세대들, 이 땅의 인간이라면 누구나없이 삶의 근본으로, 혁명의 진리로 간직해야 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력사, 수천년의 책에도 다 담을수 없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명도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속에 차넘친다.

교과서만 그 말을 불려만 보아도 격동된다. 혁명투사가 걸어갈 길, 나라와 민족이 개척할 운명의 길에 대하여 스승과 같이, 어머니와도 같이 가슴속에 속속들이 새겨주는 진리는 얼마나 소중한것인가.

한제지한제지의 빈치지는 교과지 마음속을 파고든다.

사람이 절해고도에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회고록의 갈피들도 때때로 혁명투사가 어찌하여 스스로 자기 발을 절단하지 않았던지 알려주는 말을 전해주는 그 충격적인 사연도 삼삼히 떠오른다.

인간의 힘은 위대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력사는 승리의 역사임을 가르쳐주는 혁명의 교과서,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가득찬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로부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도를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대를 이어 걸어온 전사들의 뜨거운 추억이 실려있는 그 상스러운 갈피갈피들이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세대들의 힘이었으며 전진의 원동력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과서와 함께 혁명가로, 영웅으로 자리잡았는가.

유명무명의 위훈자들이 인생의 자서전에 남긴 자랑스러운 추억들을 뒤어쩌면 거기서 나오는것은 오직 하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하라고 하신대로만 하였다 는 신념과 충정의 이야기이다.

북방의 산골마을에 가보아도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어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게 살림을 꾸려나갈 방법을 환히 가르쳐주셨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고 밭파소리 그늘에서 땅산을 찾아가보아도 석수떨어지는 막장에까지 찾아오시어 증산의 비결을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에 젖은 목소리들이 가슴을 친다.

관천과 협동봉에, 어촌과 립산마을에도, 이 나라의 산과 강 그 어디에도 초소와 일터, 거리와 마을, 집집들까지 그늘없이 비쳐진 태양의 그 따사로운 빛발을 우리 무엇으로 다 표현할수 있랴.

우리 인민이 천만년 틀어쥐고나가는 할 불멸의 사상과 리론,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단계의 혁명과정의 모든 실천적문제들, 력사의 온갖 조건을 이겨내는데 전략술과 방법론들, 매 인간으로부터 크고작은 모든 단위를, 창조와 건설의 매 분야들에서 지침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승리와 승리의 열거가 다 있다. 가슴이 벅차도록 신심이 생겼다.

우리는 자기가 갈길을 똑똑히 알고있으며 우리 혁명이 가닿게 될 종착점도 명백히 깨달았었다.

최후승리의 령명은 이 위대한 력사에서 밝아오는데 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명도사에 그처럼 크나큰 무게를 실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반성을 높이 모셨는가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었다.

가슴에 사무쳐온다.

인민의 피눈물이 눈물인 대지를 적시던 12월의 그날 우리는 1mm의 편차도 없이 장군님께서 하시던 그대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절대로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이 귀전을 울린다.

우리는 심장으로 들었다.

자신께서는 지금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과 정책을 계속 학습하고있다고, 수령님께서는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셨다고 하시던 그 말씀.

우리의 사업에서 지막까지의 장군님께서 주신 가르치시어라고,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부문을 지도하시면서 모든 부를, 모든 단위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막대기를 다 마련해주셨다고 하시던 그 음성은 가슴속에 깊이깊이 울려들었다.

우리는 보고 또 보았다.

우리는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언제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후의 발자취를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며 수령님식, 장군님식 대로 일해나가자고 뜨겁게 당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의 최전방초소들을 찾으실 때에도, 혁신의 동음 우렁찬 공장과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들에 제일먼저 들리시는 우리 원수님,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력사와 그속에 담겨진 고귀한 말씀들을 새겨보시고 또 새겨보시는 그 숭엄한 모습을 우러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우리 원수님의 사색과 평도의 출발점이 무엇이며 우리 원수님의 걸음걸음이 무엇으로 이어지고있는가를 절감하면서 온몸으로 간직할 신념의 기둥은 무엇이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혁명의 교과서는 투쟁과 생활속에 가까이 다가서고있으며 그 생명력은 더욱더 커지고있다.

어찌 시대가 젊고 조국이 전진하지 않을수 있랴.

우리 혁명의 대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평도의 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멸의 향도로 또 다시 폭풍과 같이있게 력사의 생생길에 서가시는 혁명의 교과서,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배심드든다.

참으로 위대한 시대, 영광스러운 투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도사를 한치의 편차도 없이, 한걸음의 손색도 없이 더 줄기차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 계시기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다.

넓어지고 약동하는 시대, 비약하고 또 비약하는 이 보람찬 시대에 그대들은 무엇을 해놓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으며 얼마나 몇몇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후대들앞에 나설수 있는가.

이것은 혁명의 교과서대로 살며 투쟁할 우리들의 각오와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아무리 나신 과업은 방대하며 정세는 갈수록 의연히 긴장한다. 원수들은 언제 한번 우리의 성과, 우리의 전진에 대하여 달가워한다도 인정하지도 않으며 매일, 매 시각 우리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온갖 악악을 다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자주적인 나라, 존엄과 전승을 귀중히 여기는 인민들에 대한 온갖 날조된 정보와 방대한 전과로써 지구를 뒤덮고있으며 지배세력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밀착으로 하여 별의별 뭇짓을 다 꾸미고있다.

핵무기와 딸라, 전과를 틀어쥐고 세계를 제멋대로 좌우지하려는 미제와 그에 추종하여 어부지기로 일어나는 온갖 세력들과 단적으로 정면대결을 하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식대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건설해야 한다.

먹는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전기문제도 풀어야 하며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보란듯이 추켜우고 시대의 기념비들도 더 자랑스럽게 일떠세워야 한다.

우리는 쌀쫄록, 만물들의 향기, 과학기술진군의 힘찬 발걸음, 집집마다에서 흘러나오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로 적들의 괴립암 살책들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더 빨리, 더 높이, 더 용감하게 비약하여 조선속도라는 위대한 시대에, 세계공용어와 더불어 온 세

계를 우리 조국을 부러워하게 하여야 한다. 리상이 높고 꿈이 많을수록, 조건이 어렵고 투쟁이 강고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역세게 들어잡아야 할 기치는 혁명의 교과서이다.

틀어치면 승리와 영광이고 0.001mm라도 탈선하면 담보와 좌절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공화국을 노린 적들의 중풍이 그처럼 로물적으로 우심해지고있는 때에 왜 조선인민군 헌법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탐사행군과 모란분야단의 향강도순회공원을 조직해주시는가를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우리와 적들과의 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 배짱과 담력의 대결일뿐 아니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순결하게 고수하기 위한 결사전이며 그 위대함과 승리의 필연성을 증명하기 위한 신념의 투쟁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가르쳐주시신 선군교의, 지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추호의 흔들림없이 끝까지 갈 때에만 우리의 모든 행복, 모든 영광, 모든 승리가 있다.

오늘의 투쟁을 가장 요약하고 군사적으로 강대하다고 하면 두 세계주의를 타승하시고 재가르만 내리는 빈터에서 가격의 천리마가 나뒤통으로 찌르셨으며 수심상상에 걸리는 반제반미대결전을 면전면승으로 이끄시고 간고한 시련속에서 존엄있는 강국을 일떠세워주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지켜보신다는 배심을 가질 때 무서웠기에 고고추지했었다.

천만민군이여, 혁명의 교과서를 심장에 안고 살라! 혁명의 성과와 조국의 전도는 우리들 자신의 실천에 달려있다.

그의 평도업적은 다같이 깃들어있는데 일이 잘되는 단위로 그렇지 못한 단위가 있게 되니는 무엇때문인가.

몸마다 탈출할 알아야 온을 내고 보석도 탐이 맞아 본다.

교과서가 있다고 해서 길이 저절로 열리는 법이 없으며 그것을 학습하였다고 하여 누구나 막걸리는 실천가라고 말할수 없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평도사를 학습하고 또 학습할뿐 아니라 구현방도를 피라게 탐구하고 결을마다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여 현실에서 온이 나가 하여야 한다.

개혁의 길, 극복의 길, 돌진의 길이 간고하다.

실현의 대안은 반드시 있다.

혁명의 교과서를 묵숨처럼 간직할 우리들의 심장속에 있고 혁명의 교과서대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고 또 뛰는 발걸음에 있어 혁명의 교과서를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흘러고 또 흘러는 구슬땀이 있다.

인민들이여, 비약과 혁신의 목표를 세울 때, 과학적인 사업기준과 방법론을 찾을 때, 시대대에 지닌 책임인 이 심장에 피를 끓일 때 혁명의 교과서부터 펼쳐라.

만일 일떠세우는 과정에 조건이 불리해진다 해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끝장을 볼 때까지 맞서나가라.

누가 실정을 뵈 일꾼이고 누가 뒤떨어진 일꾼인가. 기준은 명백하다.

누가 잠시도 헛눈을 팔지 않았고 누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간다. -서해잡문에서- 본사지가 립 학 학 적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다르 에스 실람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자카야 울리쇼 키크웨레 각하

나는 탄자니아련합공화국창건 50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친선적인 탄자니아인민이 지난 반세기에 이르는 력사적기간 나라의 정치적독립을 공고하고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자기 일처럼 기쁘게 여기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선과 탄자니아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이익과 번영에 맞게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둔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의 통성번영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4월 21일 평양

도고 공화국 대통령  
포르 에소집나 그나쌍그베 각하

나는 독립 54돐을 맞이하는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친선적인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공고하고 경제발전권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4월 24일 평양

##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국토관리사상과 평도업적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 락원으로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풍요하고 아름다운 조국산업을 물려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의지가 뜨겁게 어려있는 기념비적문헌이다.

주제 101(2012)년 4월 27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국토관리사업의 본질과 중요성,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 평도법에 국토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육성하며라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문제, 토지와 산림, 도로와 강천, 연안과 병해의 보호관리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 있다.

지금 우리 근대와 인민은 내 나라, 내 조국강산을 사회주의본래가 살아나는 인민의 국토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터전으로 가꾸어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미래관을 뜨겁게 되새겨 보고있으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이 땅위에 통성번영하는 주제의 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울 불라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사업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 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그 대상과 요구가 거창하고 시급성과 장기성을 요구하는 국토관리사업은 전방성있게 벌려야 조국의 산천을 인민의 락원으로 전면시급성 있게 대대손 손 누러갈 행복의 보금자리들을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한층토록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들리시고 조국산천을 훌륭히 꾸리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실험을 바쳐오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고 문수봉에 오르시

여 친히 나무를 심으신 때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의 국토관리사업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기둥과 더불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국토건설의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국토관리 총동원운동을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평도하시어 우리 조국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시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주시신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고 인민의 만복이 꽃피어나게 하신데서 사회주의무동원운동으로 전면시급성 투쟁을 헌명하게 이끌어나가고계신다.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산림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평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면모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체도에 맞게 일신시키나가기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국토관리사상과 평도업적을 견결히 옹호하시고 끝없이 빛내어 나가며 장군님의 유훈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없이 일떠서고 산림조성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평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온 나라를 사회주의본래가 살아나고 사회주의향기가 넘쳐나는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 주제의 최고성지로서 습윤한대공공은 온갖 꽃이 만발하고 수림이 우거지게 하여 태양궁전의 풍치를 한층 더 높도록 하신것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시의 거리와 마을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새 품종의 잔디를 많이 심어 수림화되던 시, 특음이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더욱 훌륭하게 변모되도록 헌명하게 이끌어나가신것은 혁명의 문화정신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곳곳에 공원과 유원지를

이 잘 꾸려주어 인민들에게 웃음과 광만을 안겨주어있는 현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국토관리사상과 평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평양시가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나아가 변모되고있으며 나무를 심고 광산을 조성하며 꽃과 지피식물을 심기 위한 사업이 전군전민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져 우리 조국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의 체도에 맞게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명 평도 가 있기에 우리 조국은 주제의 사회주의 락원으로 더욱 훌륭하게 전면되게 될 것이다.

국토관리사업은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토지와 산림은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이며 경영업의 원료원천지이다. 토지보호, 산림조성, 강화천정리를 잘하지 못하여 토지와 산림이 류실되거나 못쓰게 되면 농업생산을 비롯하여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품생산도 늘일수 없다. 충실히 재부가 나오고 홀신하면 아무것도 얻을수 없는것이 국토관리사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전국의 본보기로 내세워주시는데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시신 황금산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원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발발지대에서는 부침밭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산을 걷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며 바다를 걷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여야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킬수 있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방침이다. 국토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풀고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는 군의 농업생산과 지방경제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명 평도에 의하여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건의 땅답게 더욱 훌륭히 변모되고 이르는 곳마다에 청춘과원들이 생겨나 파수의 바다가 펼쳐지고있다. 모든 산들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나무심기사업이 전군전민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강화천 정리를 하고 쓸도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

# 국토관리사업에 힘을 넣어 거리와 마을,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자

## 위대한 령도아래 전변의 새 모습 펼쳐지는 조국강산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국토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진 때로부터 지난 2년간 내 조국강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졌는가. 세계적인 마시펄스키강과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하여 도처에 일떠선 기념비적 창조물들, 각지에 꾸러진 공원과 유원지들, 주단처럼 펼쳐진 잔디밭들... 이 자랑스러운 전변은 국토관리를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현명성에 대한 생동한 화폭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가슴 마디에는 주제 101(2012)년 3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들을 찾으면서 부대장들과 함께 손수 나무를 심으시던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 있다.

오늘은 해방직후 백두산 3대장군께서 모소 모란봉에 오르셔서 조국의 통일발전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식수사업의 첫 봉화를 지펴주신 역사적인 날인 동시에 우리 나라의 식수절이라고 하시면서 모소 마린해가지고오 나무를 위대한 수령님의 현치교시판과 어버이장군님의 현지도표식이 자리잡고있는 곳에 정성껏 심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무를 심을 구멍을 미리 파놓는데 대해 지적하

시면서 진정한 애국심은 이 땅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탐욕려 심고 가꾸는 데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숭고한 모범으로 보여주셨다.

나무를 심고 그 주변의 흙까지 꼼꼼히 다져주시면서 점심시간이 끝나도 지나도록 로고를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모습을 눈시울뜨겁게 우러르던 그때 부대장들의 심장마디에 더욱 깊이 간직된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절세의 애국자를 모시기 위하여 우리 조국강산이 더욱 밝은 빛을 뿌리게 되었다는 력사의 진리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국산천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끝없이 사랑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 김정은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응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크나 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군대들이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으로 이룩한 성과를 그 얼마나 많은가.

새롭게 변모된 합창장과 보통강공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제 101(2012)년 4월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라 대하라》를 발표하시어 전변 군인들 국토건설에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웅대한 국토건설구상을 앞장서서 받들려는 열의만큼 펼쳐 나신 인민군대들은 수령령도아래의 정신과 무비의 헌신성,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방대한 합창장과 보통강정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전히 결속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주체의 최고성적 금수신태양군정지구가 더 훌륭히 꾸러지고 합창장과 보통강의 강, 락원의 강으로 보다 아름답게 변모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도리기계건설과 건설 그리고 강화천정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평양시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시설물, 편의봉사시설, 공원, 유원지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관리사업에서 지피식물이나 개건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현대적인 잔디연구소를 건설할때 대한 조치도 취해주셨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잔디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리와 마을, 일터들이 푸르게 단장되는 류다른 풍치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국토건설의 대강을 받아인고서 원형과 자랑찬 성과로 이어온 지난 2년간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오늘 천만군민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높여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

## 1만여정도에 116천㎡규모의 나무를

황해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당의 위대한 국토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불철나무심기에 힘있게 참여하고 있다. 총합된 자료에 의하면 불철 나무심기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도적으로 1만여정도에 창성이갈 나무, 세살나무, 잣나무 등 6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도리기계건설과 건설 그리고 강화천정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평양시를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시설물, 편의봉사시설, 공원, 유원지들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왔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토관리사업에서 지피식물이나 개건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현대적인 잔디연구소를 건설할때 대한 조치도 취해주셨다. 그리하여 어디서나 잔디바람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리와 마을, 일터들이 푸르게 단장되는 류다른 풍치가 펼쳐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국토건설의 대강을 받아인고서 원형과 자랑찬 성과로 이어온 지난 2년간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는 오늘 천만군민의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수준을 높여나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군혁명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그 바쁘신 속에

### 금야군에서

금야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심1m의 토랑을 처리하여 오로 강을 막고 심어놓은 강줄기를 돌리었으며 여러개의 돌림물길과 많은 배수관, 다리를 건설하였다. 이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2500정도의 농경지를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어 압록생산을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방이 열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라 한다.》

금야강과 덕지강을 비롯한 많은 강하천을 끼고있는 군의 일부 지역은 무더기비가 오래 동안 내리거나 해일이 일면 물이 미처 빠져지 못하여 2500정도의 논밭이 물에 잠긴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작업량이 방대하여 지난 기간에 손을 대지 못하였던 큰물피해지역공사를 대담하게 진행할것을 토의 결정하였다.

은군이 펼쳐나 장미비와 해일로 오로강이 범람하는 현상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군에서는 수심1m의 토랑을 처리하여 심어놓은 강줄기를 돌리기 위한 공사에 기본력량을 집중하였다.

공사에 펼쳐나신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여 쌀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데 자기들의 맘을 아낌없이 바칠 열의를 안고 현일 헌신을 일으켰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매일 많은 토랑을 처리하여 강줄기를 돌리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이들은 2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심어놓은 강줄기를 새로 형성하였으며 강둑과 주변에 2만여그루의 나무를 심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군에서는 오로강을 막기 위한



공원을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훌륭히 이바지할수 있게 앞장서 꾸려가고있다. -모란봉구역 공원, 유원지관리소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다리 건설 힘있게 추진

허천군에서 수의 1다리, 수의 5다리를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불철나무심기의 운행을 위한 토랑을 처리하여 심어놓은 강줄기를 돌리기 위한 공사에 기본력량을 집중하였다. 군에서는 수심1m의 토랑을 처리하여 심어놓은 강줄기를 돌리기 위한 공사에 기본력량을 집중하였다. 공사에 펼쳐나신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노동자들은 귀중한 토지를 보호하여 쌀을 많이 생산하게 하는데 자기들의 맘을 아낌없이 바칠 열의를 안고 현일 헌신을 일으켰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매일 많은 토랑을 처리하여 강줄기를 돌리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리하여 이들은 2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심어놓은 강줄기를 새로 형성하였으며 강둑과 주변에 2만여그루의 나무를 심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군에서는 오로강을 막기 위한

### 위대한 령도아래

우리의 생활에서 량심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한다. 공민적정신, 깨끗한 량심, 애국의 량심, 순결한 량심... 량심이라는 말이 나에게 새삼스러운 의미로 새겨져 온 게기가 있었다. 며칠전 아침출근길에 오던 내가 돌리거리의 어느 한 공원을 지나고있을 때였다. 어린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종이비행기를 띄우며 뛰노는것이였다. 이때 앞서 걷던 한 녀성이 재롱스럽게 뛰노는 아이들을 손주어 부르더니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그리고는 밝은 웃음을 띠고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 량심의 거울

그러니 량심이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인 마음을 지녔는가를 비추는 거울인것이다. 오늘 조국의 그 어디에나 공민적 량심을 지니고 자기 사는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 선경으로 꾸러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은 김정애국주의를 심장으로 새겨안고 자기의 깨끗한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다. 후대위치는 마음을 안고 출근 길을 다그치는 나의 귀전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듯싶었다. -모두다 량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며 살자. 그러면 우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활짝 꽃피게 될것이며 내 조국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넓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윤용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제14호 주체103(2014)년 4월 19일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힘있게 발터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나며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제제》를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학교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고 자라나는 세 세대를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모범적인 학교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영예의 붉은기 청진시 포항구역 청송소 청진시 라남구역 남청진고급 학교

사흥군 문무고급중학교 승호군 승호소학교 관곡군 경도소학교 김서진 중형소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령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닦고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있다. 뜻깊은 올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을 열어나갈때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여러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많은 애정애로써 기적과 위훈 창조의 결실을 세계에 지펴올려 나갔다.

전체 공사참가자들의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현재 평간새만, 물계재주장, 조류판, 파출관을 비롯하여 8개 대상을 새로 건설하며 50개 대상을 개건하기 위한 1단계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중앙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량이 방대한데 맞게 설계력량을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들에게 대상공사를 일정에 맞게 내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설계부문의 일군들과 설계가들은 규모와 형식의 건축물로 새로 건설 및 개건할 국의 제도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열의가 살아나고 선진사회의 선 미학성이 보장되도록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단위의 설계를

##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 적극 추진

통치수려한 대상산기슭에 있는 중앙동물원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도에 맞게 훌륭히 꾸러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안겨주기 위하여 생의 따지고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철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중앙동물원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제도에 맞게 전면시공을 직접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 3월 11일 또다시 이곳을 찾으면서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 활거점대로 훌륭히 꾸러나신다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당의 웅대한 구상에 의하여 진행되는 중앙동물원개건보수공사는 14만여㎡의 연건축면적에 90여개 대상을 세계적수준의 건축물로 새로 건설 및 개건할 국의 제도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열의가 살아나고 선진사회의 선 미학성이 보장되도록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단위의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닦고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이고있다. 뜻깊은 올해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을 열어나갈때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여러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많은 애정애로써 기적과 위훈 창조의 결실을 세계에 지펴올려 나갔다.

전체 공사참가자들의 열의가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현재 평간새만, 물계재주장, 조류판, 파출관을 비롯하여 8개 대상을 새로 건설하며 50개 대상을 개건하기 위한 1단계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중앙지휘부와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공사량이 방대한데 맞게 설계력량을 보장하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들에게 대상공사를 일정에 맞게 내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공사에 필요한 설비,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따라세우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백두산건축연구원, 평양건축종합대학을 비롯한 설계부문의 일군들과 설계가들은 규모와 형식의 건축물로 새로 건설 및 개건할 국의 제도에 맞으면서도 우리의 열의가 살아나고 선진사회의 선 미학성이 보장되도록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단위의 설계를

물계재주장을 비롯한 다른 건축물공사들은 지도요체에 여러 단위 건설자들도 지력쟁쟁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완강한 돌격전을 벌여 공사기일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있다. 하여 지도국이 맡은 건축물들의 표준공사는 80%이상, 내부비무공사는 45%이상에서 지난 3월 19일까지 1단계공사가 완공되어 있다.

공사에 참가한 여러 부대 군인건설자들도 당이 결심한 무조건 해내야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맡은 공사과제를 높이 받들며 닦고있다.

조선인민내무부 김경남소속 부대 군인건설자들이 현전핵심인, 만년보존의 구조를 신장시키며 새겨안고 기술정교와 공업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공사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여나가고있다. 이들의 투쟁에 의하여 부대가 맡은 령도사명은 그 고유한 양상과 형태미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참관자들의 편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할수 있는 본보기적건축물로 하루하루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고있다.

조선인민내무부 진팔성소속 부대 군인건설자들은 수만㎡의 동물사주변 및 주내도포장준비를 철저히 갖추면서 관공구역에 잘 보도블록공사를 전격적

본사기자 류성국





